

조약골 <아나키즘으로 떠나는 파란만장한 여행>

제 2강 아나키즘의 흐름

◆1교시 : 미국 아나키즘의 흐름

▲루시 파슨스(Lucy Parsons)과 노동 운동 배경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루시 파슨스라는 사람이에요. 흑인여성이고, 미국에서 드물게 널리 알려진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한국의 아나키스트나 다른 나라에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흑인이고 유색인종, 여성이었으므로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작은책에서 메이데이에 관한 특집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사람 자체를 조명한 글은 없었어요.

백인 남성이었다라면 널리 알려졌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루시 파슨스에 비교하면 미국의 여성 엠마 골드만 같은 경우는 알려지기는 했어요. 루시 파슨스가 먼저 태어나서 앞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죽은 것은 비슷한 시기일 거예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중반까지 활동한 것으로 비슷한데, 루시 파슨스가 10년이나 더 된 거 같고, 엠마 골드만은 러시아에서 태어나 10대를 보내고, 미국으로 이민을 했고, 다시 미국에서 쫓겨나 다른 유럽나라들을 다니며 활동했고, 캐나다에서도 활동했어요.

엠마 골드만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루시 파슨스는 노동운동에 집중한 사람이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듯 해요. 유색인종, 노동운동가여서 알려지지 않았다는게 역사라는게, 얼마나 편향된 시각인줄 알겠죠.

텍사스는 미국 남부, 노예제도가 남아있었던 상황이에요. 노예제도가 북측의 승리로 없어진 했는데, 명목상 그렇지만 노예제도가 없어졌다고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게 아니죠. 지금도 유색인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죠. 루시 파슨스가 살았던 시대는 그 보다 훨씬 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도 심했고, 여성에 대한 차별도 심해서, 이중 삼중의 장벽을 느꼈을 것이다.

원래 성 대신에 멕시코 성, 곤잘레스라는 성을 썼다고 해요. 짙은 피부색은 멕시코이기 때문에 그렇다. 흑인이라는 것보다 멕시코계가 덜 차별을 받으니까 그렇다는 거구요.

남편은 앨버트 파슨스인데, 텍사스주에서 흑인 참정권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백인 남성인데 진보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앨버트가 죽을때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했고, 루시 파슨스가 죽은 후, 그가 죽은 헤이 마켓에 묘소를 만들어 같이 묻히게 되죠.

엠마 골드만과 아나키즘에 관련된 논쟁을 벌이는데, 당시 미국에서 이름이 있는, 아나키스

트, 여성 중에 엠마 골드만이었는데, 몇 가지 점에서 생각이 비슷했는데, 달랐던 점은 루시의 경우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즉 생디칼리즘(Syndicalisme), 노동조합을 활동의 중심에 놓고 보는 거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공장을 운영해나가는 거예요. 사장이 경영자이고 노동자는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공장을 경영해 나가는 거죠.

▲루시 파슨스와 노동운동

생디칼리즘(Syndicalisme) 입장에서는 자주관리라 부르고, 노동자들이 산업시설, 생산시설을 담당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가야한다. 같은 의미로 농민들은 각자 자립적인 생산 공동체를 만들어 생산활동을 해 나가고, 다양한 단위들이 자유연합이라는 원리에 기초해서 교역하든, 그러면서 사회를 짜 나아가는 모델을 ана키스트들은 그려왔죠.

루시 파슨스 경우는 노동에 주목에 했던 것 같아요. 시카고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텍사스는 차별이 심했어요. 흑인은 백인과 결혼해서는 안된다는 법안이 있었죠. 흑인이 뭐냐, 혼혈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미국은 백인 중심의 문화가 강하고 백인과 흑인 사이에 난 사람은 흑인취급을 받고, 1/32이 흑인이어도 흑인취급을 받아요. 나의 고조할머니가 흑인이었다고 해도 인종적으로 흑인이 되죠. 생긴 것은 별 차별이 없어요. 1960,70대까지 이런 법이 남아 있어요.

백인으로 태어나 백인으로 산 여성이 있어요. 여권신청을 하러 갔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태어난 곳도 백인, 친구도 백인이었는데, 자신이 흑인이라고 생각지 않았죠. 정부기관에서 여권을 내주려고 보니까 그 사람의 고조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흑인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황당했죠. 소송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법률적으로는 흑인일 경우, 흑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텍사스를 떠날 수 밖에 없었죠,

루시 파슨스 경우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고, 부부였는데, 남편의 경우 백인이었고, 자신은 유색인종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협박이 많았죠. 상대적으로 시카고가 신흥도시였고, 공업화되면서, 시카고, 디트로이트에 흑인 노동자가 밀집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남부에 비해 자유를 누리고 있던 북부 대도시로 결집하게 되죠. 엘버트와 함께 시카고로 이주하게 된거죠. 거기서 남편은 노동운동을 계속하고, 자신도 나름대로 활동하다가 헤이마켓에 폭탄투척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 사건을 계기로 남편이 잡혀가죠.

▲루시 파슨스의 ана키즘 수용

그 둘은 시카고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조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2시간 등등이 잘못되었다, 8시간 노동제, 요구를 하고 노동자들이 나오게 된거죠. 몇 만명이 나오게 된거고, 총 파업을 일으켜 같은 노동자들이 힘을 합하면 요구조건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직접 행동은 파업을 통해서 자신의 요구조건을 직접 이루어나갔다는 거고. 예전에는 ана키스트들이 즐겨 사용했던 투쟁 방법이었죠

직접 행동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ана키스트들을 분리하는 조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맑스주의 경우 선진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라, 그 위에서 내리는 경우가 있죠. ана키스트 경우는 이런 것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이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펼치고 있었죠.

총파업 경우 다른 사회주의자들이 쓰기는 했지만 큰 중요성을 부여했던 건 ана키스트들이었고요, 시카고 경우는 당시 억압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분노가 있었죠. ана키스트들이 조직을 했던 것 같아요. 힘을 모으면 요구조건을 얻을 수 있다.

총파업을 벌이기 했던 것은 1886년이고, 그 전에도 기관지에 글을 쓰거나, 연설을 한다거나, 루시 파슨스는 미국에서 뛰어난 연설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흑인 여성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것을 상상하기 힘든데, 그래서 큰 감동이 있지 않았나 하는데,

가장 미국에서 위험한 여성으로 루시 파슨스가 낙인찍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100명의 테러리스트보다 루시 파슨스가 더 위험하다. CIA 나 이런데서 이런 식으로 인물리스트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 놓는 상태였어요.

노동자들에 대한 불온사상을 전파시키는 사람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거구요. 사회주의에 반대를 했다는 거보다는 ана키즘을 먼저 받아들인거죠. 미국에 ана키스트들에게 주로 유럽의 ана키스트들이 만들었던 사상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민이나 미국으로 ана키스트가 왔다갔다하구요.

프루동의 사상은 ана키스트가 아닌 미국인들에게 19세기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프루동은 19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는데, 인민은행이라는 것인데, 낮은 이자로 사람들에게 소액대출을 한다,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 운동이 있는데, 프루동은 자신의 이론에 삽입시켜 했던 거구요. 무이자로 인민은행을 만들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줘야 한다. 프루동 경우는 개혁가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아나키즘의 수용흐름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있는데, ана키스트들이, 미국으로 이민도 가지만,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민간 사람이 많으므로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여러해 동안 교류를 하게 되죠. 19세기, 특히 이탈리아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는데, 이탈리아 ана키스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사상을 전파시키는 거구요.

조선에서도 이러한 ана키즘이든, 어떤 사상이든간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교육, 사상 전수, 전파의 경우 많았다. 반일 감정, 그것에 기반에 조선이 독립을 해야한다는 생각은 조선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게 된거죠.

일본에 있던 조선인들도, 조선에서 넘어온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가거나, 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루시 파슨스는 처음부터 아나키즘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나키스트가 더 컸지요. 지역마다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선의 경우 민족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1920대에는 비슷한 비율로 있다가 아나키스트들은 완전히 소멸되고 그 후 민족주의 사회주의만 남아서 대결하다가 해방이 되어 남한, 북조선이 되지 않습니까.

▲아나키스트와 맑스주의의 분리

미국의 경우는 아나키즘, 러시아도, 유럽은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요. 스위스는 아나키즘이 주류라고 볼 수 있고, 사회주의도 많이 있었죠. 제1인터내셔널에서 아나키스트가 맑스주의가 대결해서 분리되는 과정이 있는데, 1860, 1870년인가 그런데, 그때 정도되면 두 세력 사이에 적대관계가 형성된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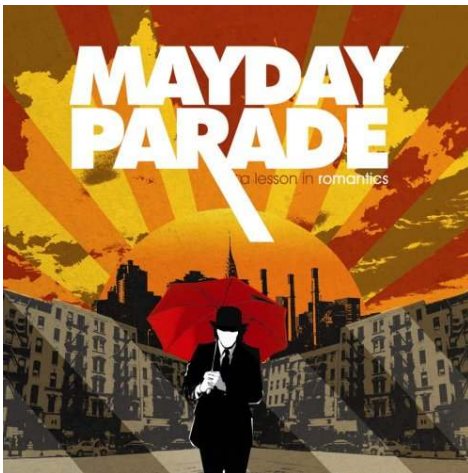
1840, 50년대까지는 같은 사회주의 뿌리에서 시작된 흐름이므로 적대관계가 없었는데, 1870년대가 되면 같은 사회주의에서 뿌리를 가져왔지만 맑스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한거죠. 같이 노동자 협회를 만들었는데, 사회주의자들이 다 모였죠. 아나키스트들, 맑스주의자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같이 못하겠다해서 갈리게 된거구요.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게 되었는데,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남유럽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은 아나키스트가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남부유럽인들의 특성, 성격, 이런 것이 아나키스트에 맞았다고 하네요.

아나키즘은 안나오죠. 역사에 있어서 알려지지 않았던 존재들이었는데, 메이데이도 기원부터가 아나키스트들의 운동이었는데, 한국에서도 노동운동, 맑스주의자들의 운동으로 알려져 왔던 거죠. 맑스주의를 반대했던 노동자들의 운동이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미국의 특성상 아직 맑스주의가 영향을 떨치기 전에 아나키스트는 자리를 잡아서 활동을 하고 있었지요

◆2교시 : ана키즘의 한국적, 세계적 흐름

▲아나키즘과 11월 11일



1886년 5월 1일에 맞춰서 8시간 근무를 외치던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ана키스트였나? 아니죠. 조직을 했던 사람들, 폭탄투척 사건이 며칠 후 벌어지는데, 알려지지 않은 누가 경찰에 폭탄을 던져 1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폭탄이 나와서 이것은 ана키스트라는 공식이 있었으니까. 다 잡아들인거죠. 그 사건이 있었던 자리에 앨버트, 루시 파슨스도 없었는데, 폭탄이 터져서 ана키스트들을 잡은 거죠.

당시 노동운동에서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시카고 경찰에 잡혀서, 증거도 조작당

하고, 배후 조정을 했다고 해서 8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려요. 선고를 받고나서 항소를 했는데, 사건이 법정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4명은 사형이 확정되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앨버트 파슨스도 그 중 한 명이었고요. 1887년, 11월 11일, 4명의 헤이마켓 순교자들이 교수형을 당해 목숨을 잃어요.

11월 11일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날이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데, 양심적인 사람들이 상업적인 것을 반대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메이데이에 관련된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11월 11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날이었다고 알려주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국가에 희생이 된거죠. 사형을 당한 사람들은 교수형을 받으러 가면서도 당당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형장으로 갔다고 해요.

루시 파슨스의 경우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활동을 하죠. 시카고에서 노동운동을 벌이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 1886, 1887년 재판을 받고 있던 당시에 구명운동을 벌였던 것이고, 잘못된 거다, 국가가 혐의를 뒤집어 씌운거다. 폭탄은 ана키즘과 연관시킨 것도 부당한거죠. 무정부주의라고 ана키즘을 말하면서도 마치 테러리즘과 ана키즘과 똑같이 여겼던 사람이 대부분이니까요.

▲아나키스트와 폭탄사용

한국의 ана키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모두 테러리스트들이예요. 일본 요인들, 권력자들

을 암살하는 역할을 하죠. 그게 현재 우리의 인식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저같은 사람도 있고요. 권총이나 암살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직접행동이었고요, 당시 조선에서는 의열단이 했던 활동이었고, 영화 ана키스트들도 상해에서의 의열단 활동을 그린 건데요.

사실 자신이 ана키스트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했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까지도 폭탄을 하나의 혁명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ана키즘이 20세기 초반까지 활짝 꽃을 피우다가 전세계주의적으로 국가주의, 파시즘 혹은 사회주의로 재편되면서 ана키즘은 설 자리를 잃게 되요. 1970년 까지는 역사에서 볼 수가 없죠.

그 이후 드러난 ана키스트들은 공개적으로 폭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테러를 하나의 방법으로 여겼기 때문에 폭탄과 연관된 ана키스트들도 있었는데, 1960년대 이후에 ана키스트들이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폭탄사용을 하지 않게 되죠.

아나키스트들이 폭탄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맥락들이 있는데,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고, 거대한 민중의 힘을 보았을 때는 폭탄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요인을 죽이고, 혼란된 상황을 만들고, 권력을 탈취하거나 할 때는 대중적인 힘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이예요. 암울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자살폭탄테러죠.

생존이라고 썼었는데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공공의 적이 있다고 하면, 미국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죠. 폭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미국이라는 것에 맞설 수 없기 때문에 폭탄을 택하는 거죠.

지금 폭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알카에다죠. ана키즘과 연관없는 사람이죠. 테러는 테러로 맞선다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생존자체가 문제 되지 않는 거죠. 폭력은 대항 폭력으로 그것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힘과 힘이 마주치면서 나타나는 권력의 욕망이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고 믿는 거죠. 알카에다를 비롯한 사람들요.

아나키스트들은 그런 식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지 못한다. 한두 번 폭탄을 통해 요인 암살한다거나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지 않는 거죠. 뿌리 깊게 억압된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 목을 따내고 해서 세상을 바뀐다고 생각지 않는 거죠.

▲루시 파슨스의 말년 활동

루시 파슨스가 처음에는 ана키스트로 시작했는데, 1940무렵에 죽었는데, 집에 알 수 없는 화재가 나서 불타죽었죠. 그것도 미국 정보기관이 저지른 일일수도 있고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말년에는 ана키즘 대신에 미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어요. 입당이라는 것은 1930년대구요. 그 이전부터 약간씩 공산주의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맞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배경에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맑스주의가 권력을 잡고 혁명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ана키즘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런 것에 생명력이 다했다고 주장을 합

니다. 자기에게는 새로운 힘이 필요했다. 그 당시 자기는 코뮌리즘에서 찾았던 거죠.

경찰에 억압을 받으면서 80살이 넘게 노동운동을 하면서 보냈어요. 자세한 자료는 한국에도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에 대한 긴 글을 쓰고 싶어요. 루시 파슨스는 미국 아나키즘 노동운동에 커다란 운동을 끼친 사람이고요,

엠마 골드만을 비롯한 미국과 서양의 아나키스트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영향이 동아시아로 오게 되죠. 인물들, 멋지고 한번씩 알아야될 인물들 중심으로 계속 여행을 떠나보는 강좌를 기획한 것이고요, 루시 파슨스로 시작을 했던 건데요.

▲해방 후 한국의 아나키스트

얘기가 길어지는데, 대부분 아나키스트들은 1946년에 해방공간에서 남한, 북조선이나 갈리기 이전이죠.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모임을 가져요. 어떻게 할 거냐. 상황은 3,8선 이북은 공산, 이남은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논쟁을 벌이는데, 후에 남한에 남게 되요.

어떤 사람은 월북을 하거나 북한으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박열같은 경우 불량선인, 돼먹지 못한 조선인, 일본에서 살다가 폭탄투척 사건과 연루된, 천황제를 없애는 게 당시 아나키즘 운동의 목표이기도 한데, 현재도 그것이 목표인데, 일본의 우익들이나 사회문제를 만들어내는 원흉으로 보고 있거든요.

은 사회를 위계질서로 만드는 정점에 천황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박열의 경우 천황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폭탄 사용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수십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박열은 감옥에서 전향하죠. 반일운동 반성한다. 천황제를 받아들인다. 라고 선언하죠.

논쟁적인 부분이지만 해방이 된 이후 조선으로 돌아와서 한국전쟁시기 월북을 하게 되요. 남북되었다고 하죠.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아나키스트들은 남쪽에 남게 되요. 남이 좋아서가 아니라 북이 싫다고 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자체가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승만, 자본가들의 정권이나, 또 다른 권위적인 북한 정권이나, 일제시대 가운데 조선을 점령하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여겨서 독립운동을 했죠.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 볼셰비키들, 민족주의자들과도 부딪치고, 제 3의 길을 걷게 되는데, 점차 세계 정세, 동아시아 정세가 그런 사람들에게 여지가 남아 있지 않게 되요.

전세계적으로 1930,40년대에는 아나키스트들이 씨가 말라요 유럽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스페인 내전을 겪으면서 1936-1939년이 되면 프랑코라는 독재자가 그 나라를 잡아먹고 독재

를 하게 되는데, 그 때 죽게 되거나 떠나거나 해서 정치적인 힘을 잃게 되구요.

러시아 중심의 맑시스트, 볼셰비키들이나, 미국이나 영국 중심의 강대국 빌붙은 민족주의자들이나, 이 사이에서 논쟁을 벌이고, 현실적으로 운동을 담보할 만한 1930년대 이후가 되면 줄어들게 되고요.

국가주의가 가장 극악한 힘을 발휘한 때가 1940년, 45년,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죠. 볼셰비키들과 갈등이 많았죠. 같은 사회주의자들이면서 볼셰비키들이 내세운 권위적인 모습을 ана키스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계속되는 볼셰비키들의 모습에 치를 떨었죠.

민족주의자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볼셰비키가 싫어서 남한을 선택했죠. 이승만정권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죠. 박정희는 더욱 가혹하게 뿌리를 뽑았죠. 모든 사회운동 세력들을요. 공개적으로 활동을 한 경우, 농촌으로 가서 해방 공동체를 만들어 여기를 근거지로 만들자, 자유공동체 운동이랄까를 오랫동안 벌였는데요, 80년대 까지 대중운동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ана키스트들의 명맥만 소수에서 이어지는 역할을 했고, 대중운동으로는 복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현재의 ана키스트

이후 ана키즘의 맥은 현재 교수들이나 한국 사회에서 ана키즘을 말하는 학자들에 의해 ана키즘이 흐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예요. 한국, 조선의 ана키스트들을 세대로 나뉘본다면 3세대로 볼 수 있어요.

일제시대, 1세대 신채호. 이회영은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한국정부에서도 추앙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면 모든 정부는 악이다라고 하죠. 해방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활동했던 사람들, 주로 명망가들이고, 남성들이고, 교수들인데, 3세대도 여전히 명망가, 교수, 연구자 중심이면서 새롭게 사회운동에서 ана키즘을 바라보는 저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논쟁지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조선, 동아시아 전체에 있었던 ана키즘 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 같은 경우 1940년 오면 ана키즘의 건강성, 자신들의 한계 때문에 찾아들었다고 보는 입장이고, 아니다 그 운동의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기도 해요.

그 중심에는 민족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찾을 수 있는데, ана키스트들의 경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뿌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ана키즘과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아나키즘의 백년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한국아나키즘 학회를 만들어 활동하는 교수, 연구자들이 있고, 요새 새롭게 2000년 이후 ана키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민족주의를 퇴행적인 것,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과연 아나키즘에서 말하는, 자유, 자연, 자치가 무엇에 대한 자유, 자연, 자치인가
고민해봤으면 해요.